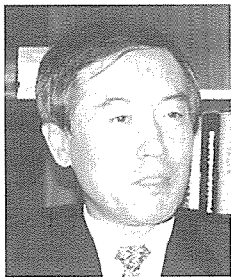


# 과학기술 창발(創發) 입국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세상에는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이 있듯이 나라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다. 불과 30~40년 사이에 세계 11위권의 경제국을 일구어낸 우리 민족의 저력은 장하다. 그러나 성급하게 선진국에 이르렀다고 믿는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과학기술 창발입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 기업, 언론, 종교, 사회단체가 발벗고 나서야 하며 7천만 동포가 이를 이해하고 따라잡야 한다.



韓榮成  
(한국전력공사 상임고문)

한 마을에도 잘사는 집이 있고 못사는 집이 있다. 국가간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를 주변에서 보아왔고 나라 또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저마다 훌륭한 민족과 고유 문화가 있고 잘 살아 보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만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 국제무대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 패권국이 된다. 이와 같이 패권국을 낳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

이며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또 길러지는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대영제국, 기술하면 떠오르는 나라 독일, 오늘날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동양의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 이들은 처음부터 강국이었고 잘사는 나라였던가? 아니다. 이들 나라들은 공히 새로운 기술과 함께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 선진국의 환상을 버려야

호랑이와 같은 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토끼나 고래가 사는 바다의 새우는 방법을 달리하지 않는 한 잡아먹히거나 등이 터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호랑이도 못 잡아먹고, 고래싸움에도 등이 터지지 않는 물고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요, 살 길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가 있다. 지금도 강국이나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국에 둘러싸여 있

는 인구 7백만의 스위스, 무엇이 이 작은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었을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체 국민중 기술·기능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몇 안되는 국회위원회중 과학기술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히 국립대는 취리히, 로잔 단 2곳에 있는데 둘 다 기술대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국립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술대 뿐이다. 그들이라고 상대, 법대 등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작은 산악국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 남는 길은 앞선 기술에 있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참으로 알뜰도록 현명한 결단이었다. 힘이 있어야 버틴다. 영원한 중립국임을 당당히 내세우며 노벨수상자 20여명, 국민소득 4만달러 어찌 이것이 우연이며 거저 되었겠는가? 눈물이 나도록 부럽고 멋지고 놀라웁다.

이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불과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세계 11위권의 경제국을 일구어낸 한민족의 저력은 장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지난날은 잘 해왔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제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선진화에 이르러니 믿고 있다. 환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좋다.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거침없이 에디슨 같은 발명가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면 고시원에서 육법전서와 씨름을 하고 있는 동떨어진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꿈과 현실의 차이, 다시 말해 어릴때 것처럼 동경하던 발명가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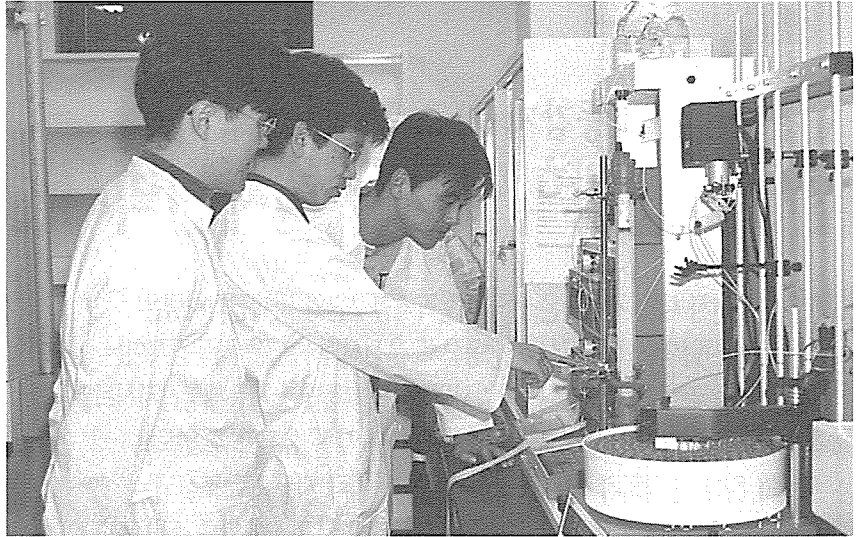
자가 자라서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이 비친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부모라도 자식들을 모두 뿔나뿔이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 두아이만을 골라 배움의 길로 내보낸다. 나라의 경우에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따로 없다. 그렇지만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강국이 살 길이라면 모든 것에 앞서 기술에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다.

### 7천만 동포가 하나 돼야

우리 민족이 걸어온 다난한 역정을 뒤돌아보자. 이어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생각해 보자. 동이 틀려면 아직인 시각, 눈을 감은 채인데 조각처럼 각인된 15글자가 제시처럼 다가선다. '과학기술 창발입국이 우리의 살 길이다'. 문제는 어떻게 창조하고 이를 수성(守城)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이며, 이것은 실천이요 행동이다. 모든 국민은 과학기술을 저마다 익히고 사랑한다.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과학이 화제가 되고, 놀이가 되고, 문화가 되어 일상생활로 녹아 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사고가, 행동양식이 살 길을 따라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이, 언론이, 종교계, 사회단체가 발벗고 나서야 하고 7천만 동포가 이를 이해하고 따라줘야 한다. 꿈이 있는 민족은 장래가 있다. 5천년을 기다려온 우리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산업화·정보화에는 뒤졌으나 지식화·기술화에는 뒤질 수 없고 뒤져서도 안된다. 한민족의 창



의적 두뇌가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 새로운 지식사회에서 아는 국민, 세계 속의 튀는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작금의 국제경제 정세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운 철저한 개방추세다. 앞마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안방 문까지 열어야 한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듯이 여기에도 단 하나의 블랙박스(black box)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 해답이 있고 살 길이 있다. 이름하여 지적 재산권. 복잡한 이름이나 쉽게 말해 남이 안 가진 새기술이자 일등 기술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기술장벽은 아무리 높게, 튼튼하게 쌓아도 전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 튀는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인류 문명 차원에서 보면 역사는 돌고 도는가!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양 문명을 시작으로, 이집트·그리스·로마의 지중해 문명, 영·독·미국의 대서양 문명, 다시 미·일 국

동 아시아가 자리잡고 있는 태평양권으로 세계 문명의 큰 흐름이 옮겨오고 있는 감이 있다. EC와 NAFTA의 결성이 예사롭지 않다. 통상 영상이나 순록처럼 약한 짐승들이 무리짓기를 좋아하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한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영특한 그들인지라 이를 감지하고 문명사의 큰 흐름을 역으로 돌려놓으려는 엄청난 시도이자 자구책으로 풀지 않는 한 이 미스터리는 끝내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한민족에게 드디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창의적인 두뇌, 높은 교육·향학열에 불타는 민족 앞에 펼쳐지는 지식사회 즉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어떤 일 특히 대사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학기술 창발입국에 국가의 장래를 걸고 불굴의 의지와 건전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지식사회, 튀는 한국인으로 거듭나 세 세기, 새 역사를, 새 한국을 건설해 나가자! ⑤7